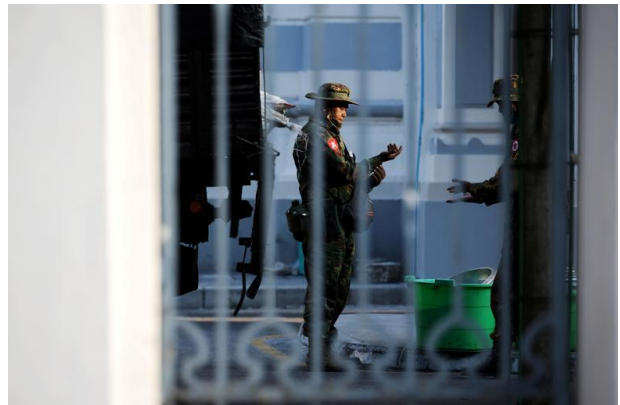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달러 전망 여전히 어둡다..최근 강세는 일시적
 - ◇ (분석)-'달러 스마일'과 '달러 숏'이 만나면?
 - ◇ (초점)-무역흑자 크게 웃돈 개인 해외투자..1월 달러/원 급등 관련 눈길
 - ◇ (초점)-실거래 반영 CD 고시제도 올해 언제, 어떻게 바뀌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국내 정치가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양곤시청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군인들 모습이 포착됐다. (로이터)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23.7	-0.4%	-3.3%	+6.5%	유로	1,2042	-0.8%	-1.4%	+8.9%
100엔 대비	1,059.7	0.7%	-0.8%	+1.1%	엔	105.36	-0.6%	-2.0%	+5.2%
유로 대비	1,344.8	0.9%	-1.4%	-2.3%	위안	6,4720	-0.3%	0.9%	+6.7%
위안 대비	172.69	0.6%	-3.7%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1,148.24	3.9%	1.8%	+7.2%
코스피	3,120.63	4.9%	8.6%	+30.8%	나스닥	13,856.30	6.0%	7.5%	+43.6%
코스닥	967.42	4.2%	-0.1%	+44.6%	S&P500	3,886.83	4.6%	3.5%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717.20	4.7%	8.3%	+19.8%
국고채 3Y	0.982%	1.1bp	0.6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311%	-0.9bp	-2.4bp	-14.5bp	미국채 2Y	0.105%	-0.6bp	-1.6bp	-144.0bp
국고채 10Y	1.791%	2.3bp	7.8bp	+3.0bp	미국채 10Y	1.169%	9.8bp	25.7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56.85	8.9%	17.2%	-20.5%	한국 5Y	23.4bp	-2.3bp	1.4bp	+0.1bp
금(현물)	1,811.62	-1.9%	-4.5%	+25.0%	일본 5Y	14.9bp	-0.3bp	-0.1bp	-4.5bp
TR상품지수	2,718.90	0.8%	1.5%	+7.8%	중국 5Y	29.5bp	-2.5bp	1.5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월 8일(월)>

- 금감원,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 발간(12:00)

<9일(화)>

- 금감원, 2020.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12:00)
- 기재부, 2020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14:00)

<10일(수)>

- 금감원: 최근 DLS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06:00)
- 한은, 2021년 설 전 화폐공급 실적(06:00)
- 통계청, 1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1차관 브리핑(13:3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간(10:00)
- 한은, 1월중 금융시장 동향·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11일(목)>

- 공휴일

<12일(금)>

- 공휴일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월 8일(월)>

- 일본, 1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12월 경상수지 (08:50)
- 유로존, 2월 섹터스지수 (18:30)
- 미국, 1월 고용추이(자정)
- 대만 휴장

<9일(화)>

-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대만 휴장

<10일(수)>

- 일본, 1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중국, 1월 CPI · PPI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월 CPI (22:30)
- 미국, 12월 도매재고 수정치 (자정)
- 대만 휴장

<11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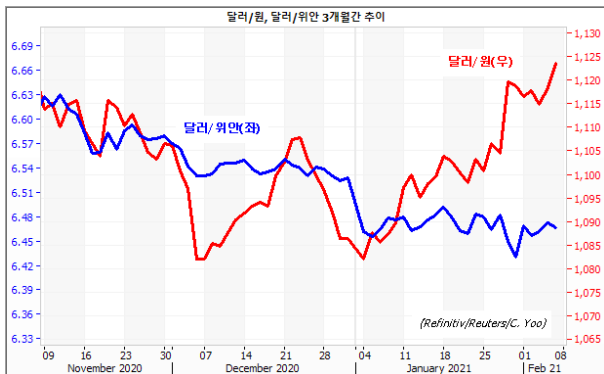
- 미국, 1월 연방예산 (04: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중국, 일본, 대만 휴장

<12일(금)>

- 유로존, 12월 산업생산 (19:00)
-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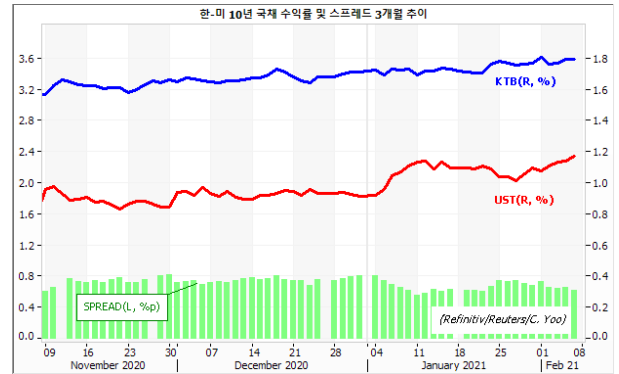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방향성이 제한된 가운데 글로벌 달러 동향을 살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10-1130 원이다.
- 달러/원 박스권 하단이 높아지고 있다. 연초 1080 원 하향 이탈 시도에 나서기도 했던 환율은 60 일 이평선이 지나는 1100 원을 넘어 1110 원 부근에서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 코로나 백신 접종과 추가 경기 부양책이 맞물려 미국 경제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다 보니 연초 전망과 다르게 달러가 일방적인 약세보다는 오히려 반등 탄력을 키우며 원화의 약세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 물론 원화에 우호적인 펀더멘털도 유지되면서 원화의 일방적인 약세는 막히고 있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적극적인 한편 외국인들의 국내 증권투자는 소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까닭에 달러/원 환율의 하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환율은 달러와 증시의 행보에 주목하면서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1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가 시장에서 예상한 5만명에 못 미친 4만 9천명 증가에 그쳐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뒷걸음질 쳤다.
- 하지만 미국의 부양책 통과 기대에 뉴욕 주요 주가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2년/10년 국채 수익률은 2017년 4월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 미국의 주가, 금리, 달러가 모두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이같은 대외 여건을 살피며 박스권 내 변동성을 키울 여지가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 정치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물 투자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주말 이뤄진 국고채 50년물 입찰의 부진은 현재 시장의 문제를 보여줬다. 금리가 2%에 가깝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장기 투자기관들이 채권 매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장기 금리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하반기로 갈수록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 확대, 기저효과 등을 반영한 물가 상승 압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정치권이 대규모 추가 국채 공급을 예고한 상황에서 장투기관들도 급할 게 없다.
- 물론 지난 10여년간 장투기관들이 느긋하게 뒷짐질 때마다 채권이 강해지기도 했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현시점에서 더 우세해 보인다.
- 설 연휴를 앞두고 단기물 중심의 수요가 이어지며 커브 스틱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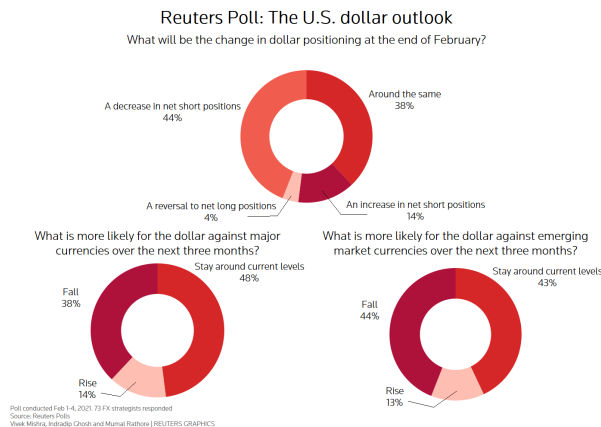
(POLL)-달러 전망 여전히 어둡다..최근 강세는 일시적

벵갈루루 (로이터) - 달러 약세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 3개월간 레인지 거래를 보이거나 절하될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됐다. 최근 달러 강세는 일시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난해 달러 매도세가 시작된 이후 트레이더들이 달러에 대한 대규모 베팅을 리뷰하는 가운데 달러는 지난 5주 중 4주간 상승했고, 올해 들어 1% 이상 올랐다.

그러나 로이터가 지난 2월 1-4일 70여명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달러 강세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요인들이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됐고,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달러 부진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널리스트 73명 중 85% 이상인 63명이 달러가 향후 3개월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이는 10명에 불과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로이터 FX 폴 인터랙티브 그래픽:

<http://tmsnr.rs/2k8GCSM>

이같은 전망을 반영해 최신 포지셔닝 데이터에 따르면 투기세력들은 달러에 여전히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주 순숏포지션은 직전주의 근 10년래 최대에서 다소 줄어들었다.

2월 말까지의 달러 포지셔닝에 대한 질문에 55명 중 29명은 달러 숏포지션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 24명은 숏포지션 축소를 전망했다. 순롱포지션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은 2명에 그쳤다.

한편 올들어 달러에 1.5% 이상 절하되며 9주래 최저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는 유로는 앞으로 12개월간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4.0% 이상 절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로는 6개월 후 1.23달러, 1년 후 1.2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는 1.20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연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연준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경기부양적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달러 스마일'과 '달러 숏'이 만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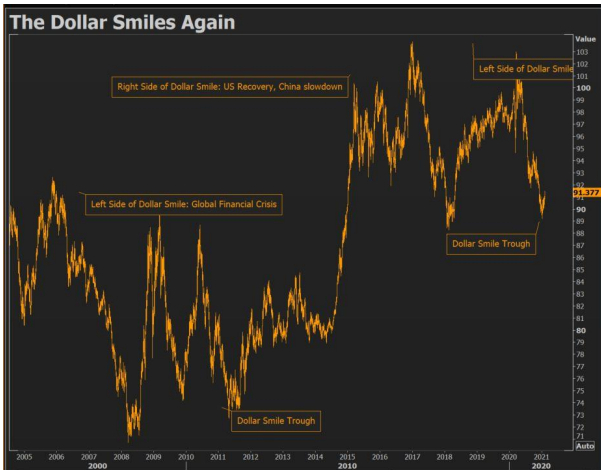
런던 (로이터) - 예상치 못한 달러 반등과 광범위한 추가 강세 조짐에 달러에 숏포지션을 취한 시장 참여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한 펀드매니저는 달러가 소위 '달러 스마일'로 불리는 거래 패턴을 곧 완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헤지펀드 유리존 SLJ 캐피탈을 이끄는 스티븐 켄이 제시한 '달러 스마일' 이론은 어려운 시기에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에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를 첫 단계로 본다.

그 이후 성장이 약해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하다가 미국이 다시 글로벌 경제 반등을 주도하게 되면 달러 가치는 상승해 스마일 모양의 곡선을 만든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2011-2012년 급격한 하락 이후 시작된 달러 스마일은 2020년 2월까지 달러 가치가 40% 오르면서 스마일의 마지막 상승 단계를 마무리 했을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젠은 현재 사이클에서 스마일 형성을 위한 첫 두 단계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 달러 지수는 판데믹으로 인한 시장 혼란 속에서 달러 수요가 늘었던 작년 3월, 3년래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그 이후 연준이 금리를 제로 부근으로 인하하면서 달러 가치는 하락했고, 지난 달에는 미국 초완화 정책과 추가 차입이 국제수지 적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에 근 3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접종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에 달러 가치는 2% 이상 상승했다.

젠은 "내 요점은 미국이 판데믹에서 매우 강하게 벗어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매우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로가 작년 7월 이후 최저치인 1.13 달러까지 절하되면 스마일의 마지막 상승 부분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달러 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는 현재 1.1955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의 고점인 1.2349 달러 부근에서 약 3%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더딘 유럽 백신 접종 속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로존 경제는 작년 10-12월 0.7% 수축한 반면 미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1% 성장했다.

◆ 과거 스마일에서 얻는 교훈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둔 채 달러 약세론자들은 과거 달러 스마일 에피소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시작됐던 때는 2008년으로, 당시 금융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의 달러 수요가 늘었다.

그 이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2012년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유로존이 부채 위기에 빠지면서 달러 가치가 다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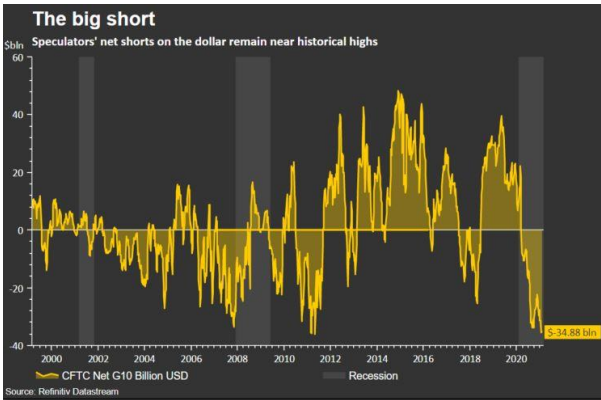
또다른 스마일 에피소드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때 신흥시장 위기로 달러 지수는 20% 이상 상승했었다.

그 동안 달러의 미니 랠리에도 달러 약세론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포지션 자료에 따르면 선물시장 내 달러 약세 베팅은 지난 주 2011년 이후 최고치인 340억 달러까지 늘었다. 지난 1월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조사에 참여한 펀드매니저들은 달러 약세 베팅이 가장 붐비는 거래 3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달러 강세론자들이 증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노르디아의 애널리스트들은 상대적 성장 및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정책, 정치 등을 이용해 달러의 방향을 가능하는 자사 지표인 달러-오-미터(Dollar-o-Meter)가 달러의 추가 강세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달러가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곤란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며, 올해 약세보다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무역흑자 크게 웃돈 개인 해외투자..1월 달러/원 급등 관련 눈길

(※ 2월 1일 송고한 기사입니다.)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러시가 지속됐던 지난달 달러/원 환율은 1년 만의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급등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일제히 고꾸라지자 이를 투자 기회로 삼은 개인들은 해외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했고, 이같은 투자 열기는 올해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197억달러로 2019년 25억달러의 약 8배로 폭증했다. 이어 지난 달에만 순매수가 약 51억달러에 달해 월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덧붙여 개인들의 1월 해외 채권 순매수 규모는 약 11억달러를 기록해 지난달 개인들의 해외 투자 관련 달러 수요는 최대 60억달러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1일 발표에 따르면 무역수지 흑자는 약 4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월평균인 38억달러를 조금 넘는 규모였다. 이렇게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넘어선 만큼 당분간 이들의 외환시장 영향력은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유가 증권시장에서 약 5조원 상당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고, 이에 더해 연초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집행까지 이뤄짐에 따라 수급상 달러 매수 시너지가 증폭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3개월 만에 1120원대로 훌쩍 상승했다.

지난달 달러/원 환율 상승폭은 30원을 넘어 작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 시장 참가자는 "개인 투자자들 관련 수급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과 비교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적을 수는 있다"면서도 "지난달의 경우에는 외인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투자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같은 (개인 해외 투자) 수급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개인들의 해외 투자 관련 달러 수요가 당분간 달러/원 환율에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글로벌 위험 회피 성향이 심화하고 이에 해외 증시가 조정받을 때 개인 자금이 회수되면서 역내 달러 공급에 일조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미국 증시가 조정받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이로 인해 달러 매도 플로우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결국 대외 리스크 오프 시 이같은 물량이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환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외인들의 환 영향력을 상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월간 전망 보고서에서 주요 증시가 조정받을 경우 관련 플로우 키는 개인이 쥐고 있다면서 "주가 조정 시 해외 주식 차익 실현 물량이 클지 아니면 저가매수에 나서는 수요가 더 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해외 투자 열기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고, 해외 자산을 늘려가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개인들의 자금 회수 강도는 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초점)-실거래 반영 CD 고시제도 올해 언제, 어떻게 바뀌나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올해부터 도입할 'CD 플러스'(가칭) 고시제도의 일정표와 윤곽이 나왔다.

금융위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경 CD 금리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5~6월경 'CD 금리 산출업무 규정'을 승인할 계획이다. CD 금리 산출업무 규정이 승인되면 금융투자협회는 연간 CD 거래량 상위 10개사를 중심으로 CD 금리 제출 회사를 선정한다. 예정대로라면 6월경부터 기존 CD 고시와 CD 플러스 고시 제도가 병행 실시된다.

CD 고시 금리를 제시하는 10개 증권사가 모두 CD 플러스 산출 방법만을 준용해 금리를 산정하는 시점에 금투협은 금융위로부터 CD 금리 산출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된다.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해당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CD 금리는 바뀐 산출 방법만을 적용해 고시된다.

금융위와 금투협은 최근 이같은 일정을 확정하고 증권사들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정교해진 CD 고시 금리 산출 방식

금투협은 CD 고시 금리 산출 방식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가다듬었다.

금투협은 당초 고시 금리 제출 증권사가 참여한 3개월물 적격거래(만기 80일~100일인 CD 거래, 거래량 100억원 이상)를 활용해 CD 금리를 산정하도록 하는데 3개월물 CD 거래가 없는 경우 인접 만기(2개월 또는 4개월)의 유통, 발행물까지 고시 금리 산정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금투협은 적격거래 이외의 CD 발행, 유통의 경우 고시 금리에 적용하는 경우를 세분화했다.

CD 2개월물(최소 45일~최대 79일)과 4개월물(최소 101일~최대 135일) 발행물 거래를 이용한 선형보간 금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2개월물과

5개월물(최소 136일~최대 165일) 발행물 거래를 이용한 선형보간 금리가 그 다음이다. 2개월, 4개월 발행물의 금리에 과거 5영업일 스프레드 평균을 가산한 금리 또는 5개월 발행물의 금리에 스프레드 평균을 가산한 금리가 다음 순위로 고려된다.

유통물은 발행물 다음으로 고려되는데 3개월물에 스프레드 평균을 가산한 게 1순위고 그 다음으로는 2개월물/4개월물 금리에 스프레드 평균을 가산한 것, 5개월물에 스프레드 평균을 가산한 순서다.

이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거래가 없을 경우 당일 전체 CD 시장의 발행 및 거래 내역, 은행채 등 유사 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담당자 판단을 통해 금리를 산정한다.

▲CD 거래량 상위 10개사가 금리 산출..금투협 "실질적 인센티브 위해 노력"

CD 금리를 산출할 증권사는 연간 CD 거래량 상위 10개사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다만 기존에는 이전 6개월간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시 증권사를 선정한 데 반해 CD 플러스 고시 증권사의 경우 이전 1년간 거래 실적을 반영한다.

금투협은 특히 신용등급이 AAA인 시중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SC, 씨티) 발행 CD 거래가 많은 증권사에 선정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D 고시 제출 증권사들이 새로운 금리 산출 체계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추가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CD 고시 제출 증권사들이 앞으로 자기자본의 15%까지 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해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고채전문딜러(PD)와 한국은행 공개시장 운영(OMO) 대상기관들은 지금도 자기자본의 15% 내에서 콜 차입이 가능하다. 현재 CD 거래량 상위 10개사를 대부분이 PD 사이거나 OMO 대상 기관이어서 CD 고시 제출 증권사로 선정되는 데 따른 혜택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금투협은 CD 고시 제출 증권사가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인센티브 문제를 금융위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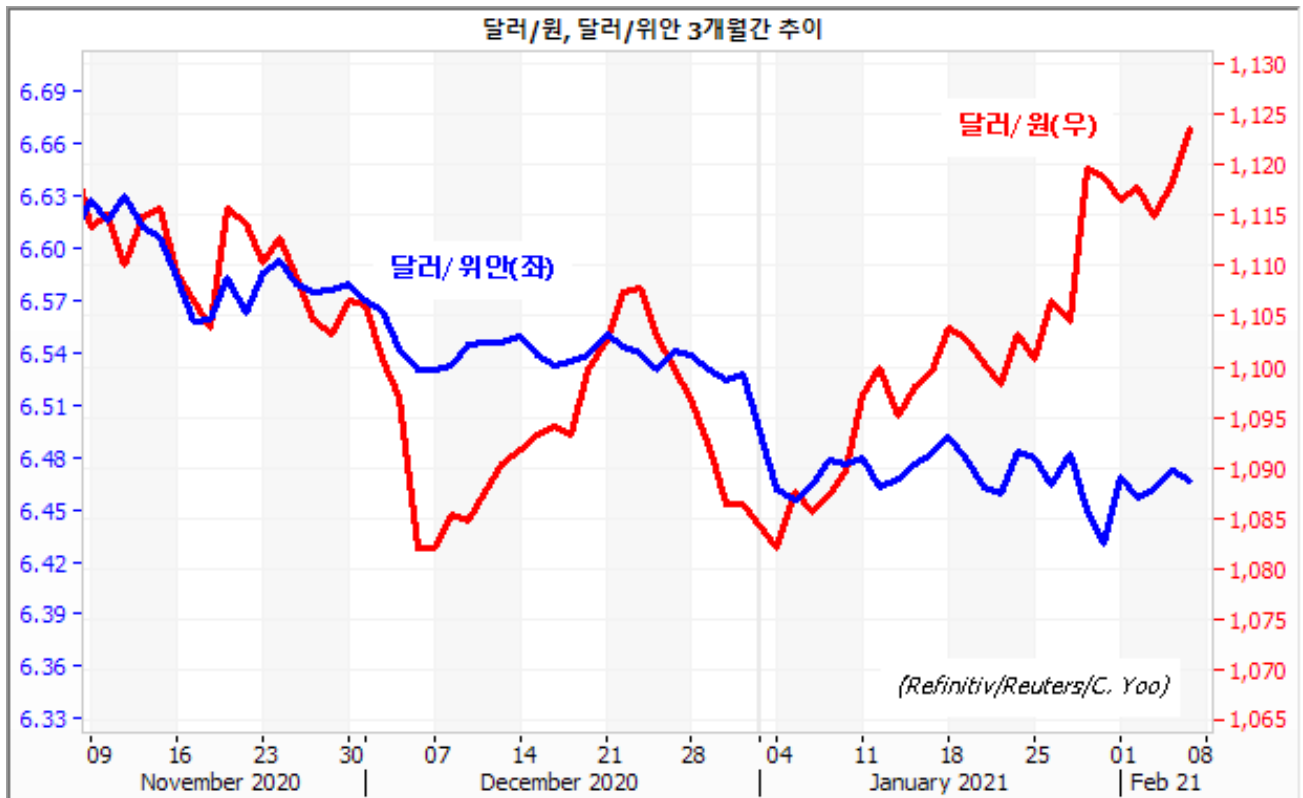
금투협 관계자는 "CD 시장과 국고채, 통안채 시장은 전혀 다르다고 금융위에 이야기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CD를 거래할 때 그만큼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콜 차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일단 금융위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CD 고시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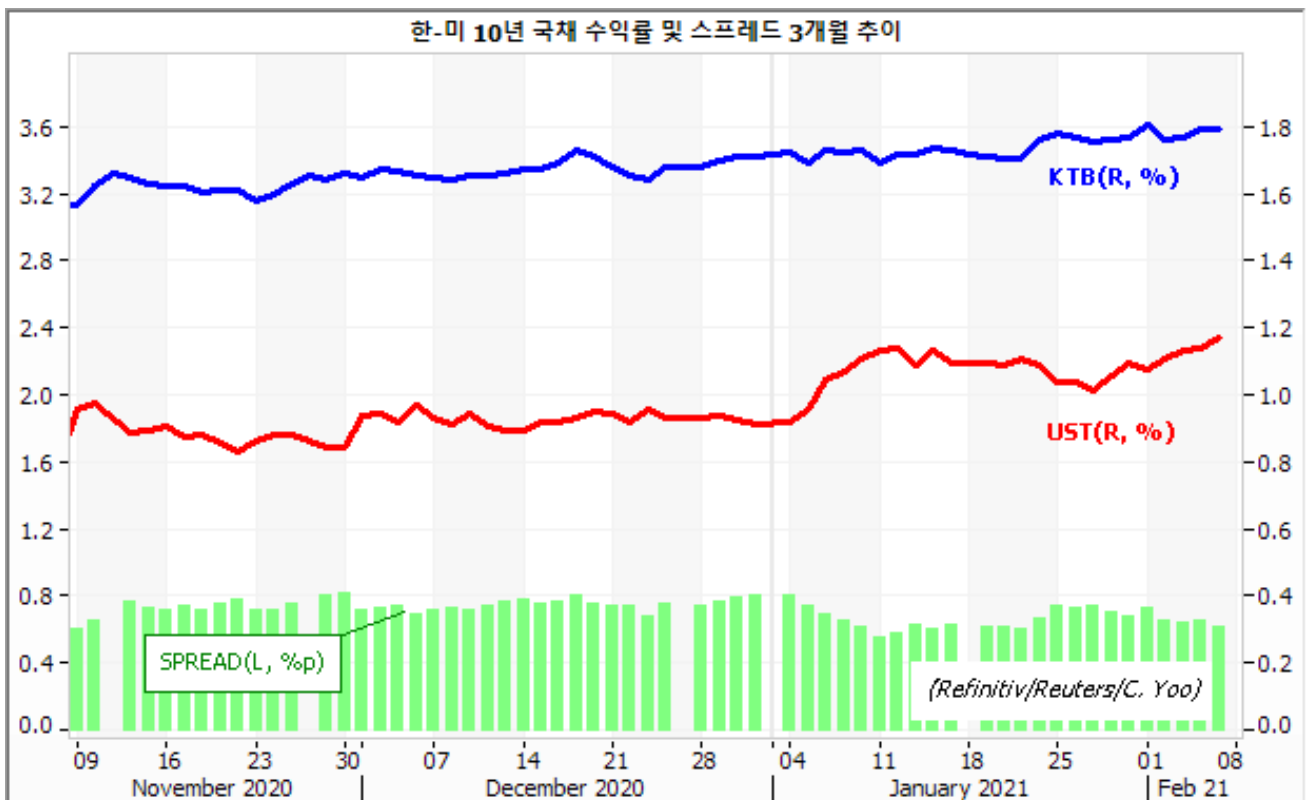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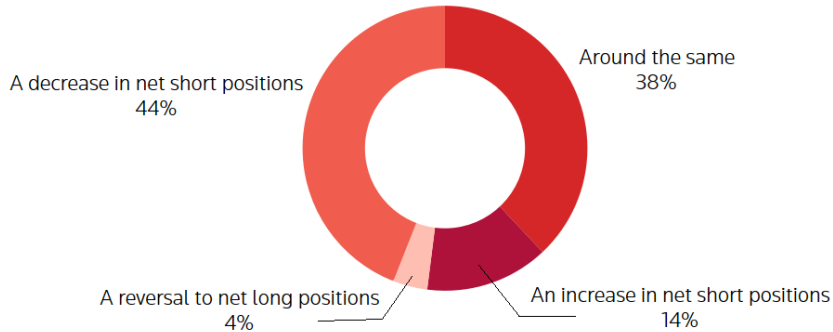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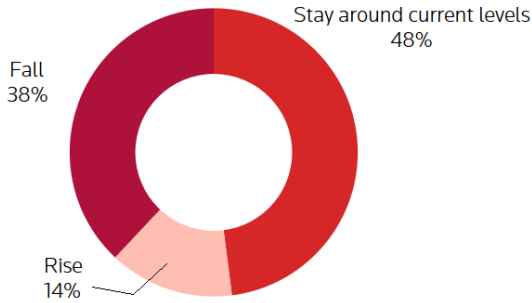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Reuters Poll: The U.S. dollar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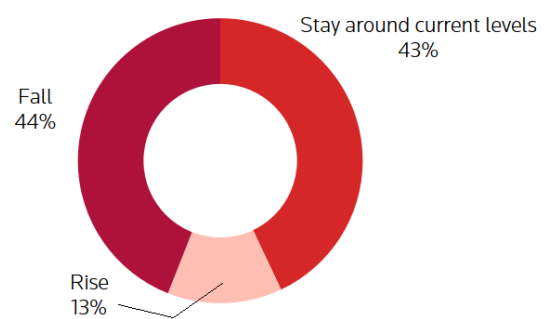
What will be the change in dollar positioning at the end of February?



What is more likely for the dollar against major currencies over the next three months?



What is more likely for the dollar against emerging market currencies over the next three mon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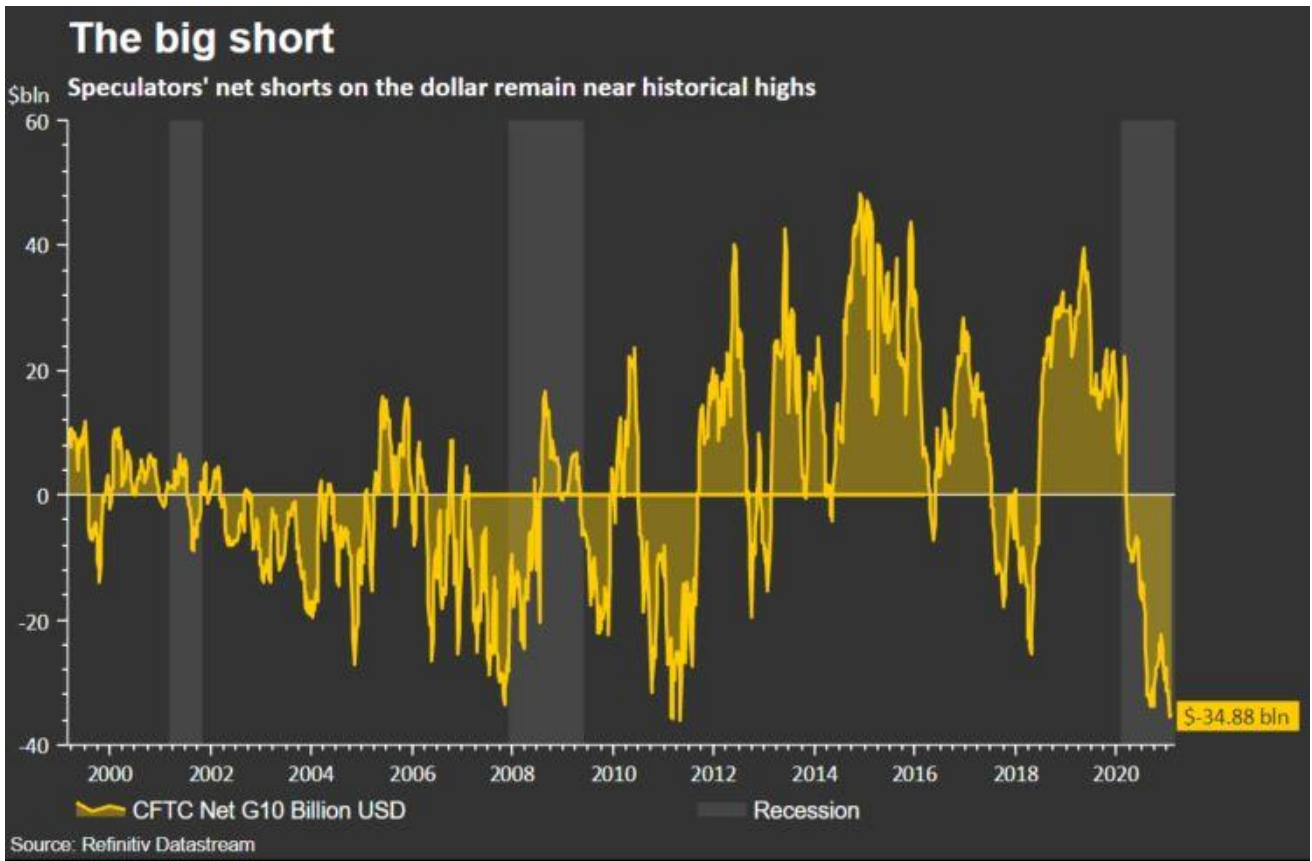
Poll conducted Feb 1-4, 2021. 73 FX strategists responded
 Source: Reuters Polls
 Vivek Mishra, Indradip Ghosh and Mumal Rathore | REUTERS GRAPHIC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The Dollar Smiles Agai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